

C형 간염 바이러스(HCV)

최 영 식

* NANB(Non-A, Non-B)간염이란 Hepatitis A, Hepatitis B, Cytomegalovirus, Epstein-Bar Virus등의 항체 검사에서 음성인 감염성 간염을 뜻하며 주로 수혈후 간염(Pos-transfusion Hepatitis)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.

* 지난 15년간 NANB의 항원, 항체 또는 바이러스 입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왔지만 모두 원인 바이러스와 무관함이 입증되곤 하였다.

* 그러나 1988년 미국 Chiron사에서 경주적으로 감염되는 NANB형 바이러스의 cloning에 성공함으로써 이를 C형 바이러스(HCV)라고 명명하게 되었다.

* 그 항체(anti-HCV)를 검사하는 효소면역법도 개발되어 혈청학적 진단이 가능해졌다.

* 그후 1989년 Science지에 처음 Hepatitis C Virus에 대해 소개된 이래 현재 국내 외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.

* C형 간염의 특징

- B형 간염과 비슷하게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.



- 간염증상이 경미 또는 무증상일 수도 있으며 만성 활동성 간염 및 간경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.

* 외국의 경우 공혈장의 0.2~1.2%, 급성 NANBH의 15~25%, 만성 NANBH의 67~85%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되었다.

*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자료가 없으나 건강공혈자 중 HCV 항체 양성율은 1% 미만이며(중앙 적십자 혈액원), 간경화 및 만성 간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속 연구하여 국내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어야 할 것이다.

* HCV 항체 양성은 현재 Non-A, Non-B viral hepatitis의 원인이 HCV이며 HCV를

잠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게 수혈등 경피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.

C형 간염의 특성

① 초기 증세 : 특별한 증세 없이 위장염 증세 뒤에 황달이 나타나며 나중에 증세가 발달한다.

② 잠복기 감염부터 간효소의 증가 혹은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2~26주(평균 8주)

③ 임상 추이

- B형 간염보다 덜 심각하고 무증상인 사람이 더 많다.

- 입원은 불필요할 때가 많다.

- HCV 감염과 전격성 간염의 관계는 불분명하며, 소수의 전격성 간염 환자는 B형 간염 보균자의 HCV중복 간염일 수 있다.

- 적은 수의 C형 간염 환자는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로 발전한다.

- 만성으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으며 심한 부작용 등이 보고된 바 있다.

④ 임상 검사 수치 : ALT의 최고치는 A나 B형 간염보다는 낮지만, 이의 상승과 하락이 가끔 일어난다.(다른 간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)

⑤ B형 간염과 A형 간염의 비교

- B형 간염의 평균 잠복기가 12주인데 비해 C형 간염은 8주.



- C형 간염 환자보다 많은 수의 B형 간염 환자에게 입원이 요구된다.

- B형 간염의 간 위해 과정(Mechanism of injury)이 Antibody-mediated인데 반해 C형 간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- HCV간염은 HBV간염보다 만성으로 가는 비율이 높다.

- 만성 C형 간염과 관련해서 심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위험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만성 B형 간염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. [7]